망치소리가 예술이 된 마을

깡깡이 예술마을

19세기 말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던 영도 대평동(남항동)은 다양한 근대 조선 산업유산과 해양생활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어요.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 '깡깡'에서 이름이 유래된 깡깡이 마을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영도 사람들의 삶과 그 산업현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평동 마을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어요.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영도 도선복원프로젝트, 벤치와 가로등, 벽화와 쌈지공원을 조성한 공공예술프로젝트,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수집하여 출판, 전시하는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항구도시 부산 영도만의 독특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로 떠나 볼까요?

*** 투어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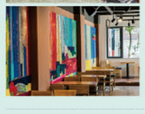
깡깡이마을은 산업현장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보행해 주시고, 조선소나 작업장 내부 사진 촬영은 가급적 삼가 주세요. 조선소와 공업사의 작업과정은 깡깡이마을 박물관에서 영상기록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거점공간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층은 대평동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평마을다방과 공동체 부엌으로 음료, 디저트,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60명 정도의 좌석이 마련돼 있어 강연이나 공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대관이 가능해요.

주소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문의 051-418-1862 F. 051-418-1864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17:00
www.kangkangee.com



깡깡이 마을박물관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2층에 위치한 마을박물관은 대평동 수리조선업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주민 생활사 등을 유물, 영상, 작품, 사진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주소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문의 051-418-1862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17:00

깡깡이 마을공작소

깡깡이 예술마을의 메이커스 프로그램, 방문객들을 위한 제작키트 조립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료체험(키트조립)

소형키트 5,000원 비즈공예 5,000원
시계키트 10,000원 드로잉엽서 3,000원

주소 영도구 대평로 45번길 3
문의 051-418-3336
운영시간 주말 11:00~17:00
점심시간 13:00~14:00

깡깡이 안내센터

마을의 역사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안내센터로 편의시설, 선박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허상투어 터미널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주소 영도구 대평북로 36
문의 051-418-3336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17:00
(월요일 휴관)

신기한 선박체험관

깡깡이 마을의 물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인선을 활용해 다양한 여습기들의 상상이 더해진 입체적인 선박체험공간이에요.

무료체험

주소 영도구 대평북로 36
문의 051-418-3336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17:00
(월요일 휴관)

깡깡이 유람선

100년의 역사를 지닌 영도 도선의 추억을 소환해 옛 영도 도선장 앞에와 대평동 통선과 유람선을 관람할 수 있어요. 부산의 낭항을 비롯해 영도 수리조선소를 보면서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에 흠뻑 취하보세요.

해상투어 6,000원 통합투어 10,000원

주소 영도구 대평북로 36
문의 051-418-3336
운영시간 평일 : 사전예약
주말 : 13시, 14시, 15시 출발
(소요시간 20분)
(월요일 휴무)

공공예술프로젝트

페인팅 시티 : 컬러풀 스트리트 정크하우스

스트리트 아티스트 '정크하우스'가 참여한 작품으로 대형 창고 외벽에 다양한 색과 수리조선 관련 이미지를 입혀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 1번지인 깡깡이 마을의 정체성을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리에 색을 입혀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으로 옛 영도 도선장 가는길에 자리 잡은 6개 건물 벽면을 채색한 벽화 작품입니다.

거리박물관 : 심정한, 우징

대한민국 최초로 연진을 장착한 목선을 만든 '다나카 조선소'가 세워진 곳의 벽면을 활용해 깡깡이마을의 수리조선업의 역사를 담아낸 7미터 벽 박물관입니다.

오시는 방법

자가철 남포역 6번 출구에서 나온 후 영도대교 건너 도보로 15분
버스 6번 - 도전화국 하차 후 도보 7분
7. 9. 71, 508번 - 남항동 정류장하차 후 도보 7분

이용 가능한 유료주차장

대평주차장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30-1
* 주차장이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깡깡이예술마을, 주요작품

우리 모두의 어머니

헨드릭 바이키르하(독일)

이 벽화의 주인공은 과거 영도 대평동에서 녹슨 배의 표면을 걷어내기 위해 고된 망치질을 했던 '깡깡이 아지매'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잘 표현해낸 이 작품은 부산을 대표하는 그라피티 벽화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벽화가 어우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치 대평동 2가 대동대교변선

쌈지공원 프로젝트

백성준, 가치예술협동조합, 마을정원사 동아리

쌈지공원은 녹지가 거의 없는 깡깡이마을에 푸른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와 가치예술협동조합이 1년간 정성 들여 꽃과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유명하졌습니다.

위치 대평동 2가 한성세탁소 안쪽골목

키네틱 프로젝트 - 바람과 시간

김태희

키네틱은 '움직이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바람과 시간'은 바람이 불면 기어가 서로 맞물리며 저절로 움직이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깡깡이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어를 활용해 마을의 '시간과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자연과, 산업, 사람들의 삶까지 한 데 엮어 보여주는 역동적인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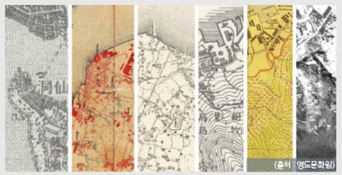
위치 대평동 2가 대평로 63

항구의 표정들 : 구헌주

깡깡이마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양장에 정박한 어선들의 앞모습을 재밌는 표정들로 상상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위치 대평남로 51번길 5, 현광산업

영도 근대 역사로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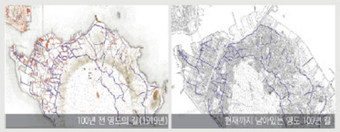
영도 근대 역사

The modern history of Yeongdo

영도대교가 조선의 아픈 근현대사를 상징하듯,
이 일대는 대한민국 근대 조선 역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산업시설, 재염·조선소
시설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그 시절 찬란했던 영도의 근대 조선 역사를
탐방하러 떠나 볼까요?

영도 100년 옛길

영도의 길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도의 삶과 생활을 오도카니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도를 보면 영도의 길은 공식적인 측량이 이뤄졌던 백 년 전과 크게 달라짐 없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라시대부터 이어왔던, 영도의 길

아! 영도대교

1920년대 영도는 인구 6만의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폭발하는 교통량을 나룻배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에 1934년에 영도대교를 개설되게 됐어요. 개통하던 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진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6만 여명의 구경꾼이 몰렸는데 당시 부산 인구가 16만이었을 감안하면 그 인기를 상상할 수 있답니다.(도개 시간 14:00~14:15)

힘차게 달려라! 영도 전차

영도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그해 영도선 전차도 복선 계통됐고 1968년 5월 20일까지 운행됐어요. 영도선은 과거 구 부산시청 앞에서 영도 대교를 지나 지금의 남항동 시장까지 운행됐는데요, 현재 남항동에는 그때의 낭만과 애환을 기억하고자 '영도 전차 종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답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포구

대평동 일대에는 과거 '바람을 기다리는 포구'라는 의미의 매립지였던 '대풍포 포구'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10년간 4만여 평이 매립되었던 곳인데,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자 100년 동안 수리조선업을 지켜 오고 있지요.

영도의 바닷길

영도다리가 생기기 전 영도의 도선(渡船)은 부산 육지와 이어지는 유일한 교통로 였어요. 도선은 먼저 조선인들이 운영했는데 운임은 쌀, 보리 등 곡식으로 대신했어요. 이후 일본 거주민 증가로 1895년에는 4척을 운영. 1901년에는 일본인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1919년부터 부산부령으로 운영하다가 영도대교 개통 후에는 주갑(洲鉀)과 남빈(南濱) 사이를 운행하는 민영으로 바뀌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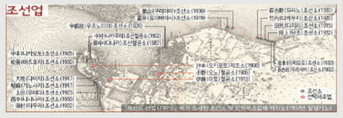
영도 근대 역사 탐방로 걷기

근대 영도의 산업을 만나다

조선에서 가장 큰 도자기 공장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전체에서 가장 큰 도자기 공장이었어요. 현재 그 자리에는 미쌈마트타워가 들어섰고 단지 안은 에는 당시의 붉은 벽돌 담장 일부가 남아 의미 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 수출을 위한 도자기공장으로 한국의 대표회가인 이당 김은호, 소정 변광식 같은 화가들이 파난 생활중 이곳에서 그릇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발상지



부산과 가까웠고 4면이 바다인 영도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발상지가 될 수 밖에 없었어요. 1887년 지금의 자갈치 자리에 다나카 조선소가 들어섰고 1912년에 철공업을 겸하게 돼요. 나카무라 조선소는 1893년 닙포동에 철공소를 설립했는데 1902년 대평동으로 옮겨 조선소를 설립했어요. 현재 이 두 곳은 여전히 운영되며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소금 산업의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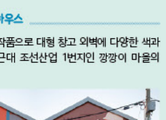
제염업

1915년 영선동에 시라이시 제염소가 설립됐어요. 현재 영도에는 제염업 관련 업종이 남아있지 않는데 제염소 건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영도가 제염산업의 메카였다는 점에서 시라이시 제염소는 영도의 유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 영도의 문화 그리고 상업

시장

1933년, 현재 봉래동 대화아파트 자리에 개장했던 목도시장은 개장 이래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 1941년도에는 초량, 수정, 영주, 부전시장을 넘어서기도 했답니다.



극장

영도에는 1912년에 이미 연극공연장이 있었어요. 에비스자 극장으로 1918년까지 운영됐다고 해요. 코토부키자 극장은 당시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1926년에는 제2 사와이자로 영업을 하다가 1946년 항구극장으로 개명 후 1990년에 폐관했어요.

유곽

1932년 대평동에 유곽이 6개소가 있었어요. 이는 당시 대평동이 영도의 중심 유흥가였기 때문인데요, 1938년에 목도유곽거리에는 6개소가 입점했었는데 주로 목도선장과 영도도선장 인근에 집중 포진돼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시험장과 금융회사

부산항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일대는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이 위치해있었어요. 수산업 각 분야에 다양한 시험 조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설립됐죠. 목도신탁주식회사는 1924년에 설립된 금융신탁회사로서 금융업, 차입금 기타 일반 채무의 보증 지급 운용 위탁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근대 영도의 흔적을 따라가다

영도 근대역사 흔적길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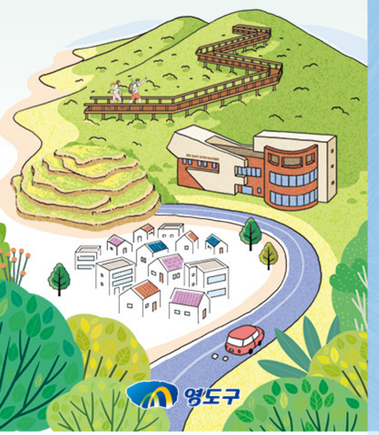
일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과 과거 아픈 역사의 한 장면까지, 보물찾기 하듯 영도 근대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봅시다. 영도 근대역사 흔적길은 A, B 두 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어요. 근대역사 흔적 지도와 함께 과거에 성황을 누렸던 조선소, 제염소, 극장, 시장, 유곽 등을 둘러보며 영도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답니다. 두 코스 모두 1.5km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는 약 40분 동안 가볍게 둘러볼 수 있어요.

영도 근대역사 전시실

영도 관광안내센터의 2층에는 '영도 근대역사 전시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전시장 바닥에 대형 근대지도, 벽면에는 영도근대역사 및 영도대교 관련 자료, 그리고 영도 대교를 해체할 때 수습한 교각 기둥의 기초 말뚝과 전차 침목 등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 다리 건너 영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 희여울문화마을 2021 한국관광 100선 선정
- 망치소리가 예술이 된 깡깡이예술마을
- 영도 근대 역사로의 산책

영도로 떠나요



영도는 1934년 11월 23일 영도다리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영도다리의 개통으로 육지와 다를 바 없게 된 영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영도 주민들은 이전에 통통배를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고, 배가 운항하는 시간에만 육지를 왕래할 수 있었다. 다리가 생기면서 영도 주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육지에 드나들 수 있었다. 1935년 2월부터는 영도다리를 통해 전차가 운행되었다. 왕래가 편리해지면서 영도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공장들도 많이 생겼다. 영도는 다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이 뒤섞이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되었다.

출처 : 다리너머영도 매거진 vol.1

영도관광안내센터

영도대교 도개 모습을 본떠서 지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내부에는 관광 기념품 등을 판매하며, 영도대교 도개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와 영도의 100년 전 옛 모습을 담은 영도근대역사 전시실이 있다.

주소 봉래나루로 79 문의 051-419-4048
교통 영도대교 - 82, 85, 7, 71, 508, 9번(영도경찰서 하차)
부산역 - 190, 85, 508, 88A번(영도경찰서 하차)
운영시간 09:00 ~ 18:00, 1월1일, 설, 추석 당일 휴관

삼진어묵체험·역사관

삼진어묵은 3대째 이어져 오는 전통 있는 부산의 기업이다. 체험관에서는 자신만의 어묵을 만들어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육 활동도 가능하다.

주소 태종로99번길 36 문의 051-412-5468
교통 영도대교 - 70, 101, 88-1, 11번(영도봉래시장 하차)
88, 85, 82, 186번(영도우체국 하차)
부산역 - 101번(영도봉래시장 하차)
운영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아레아 6

지역의 장인들과 아티스트들이 모여 로컬의 매력을 밝히고 있다. 작은 마당 사이로 즙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지며, 9개의 로컬 브랜드와 아티장 골목 마켓, 다양한 프로그램 만날 수 있다.

주소 영도구 태종로105번길 37-3
문의 삼진어묵 051-412-5468
(인스타그램 @area 6 yeongdo)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무)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조선 통신사 조엄이 가지고 온 고구마의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기념관이다. 1층에는 고구마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 2층에는 고구마 테마 카페, 요리 체험실, 교육장이 있으며 루프탑은 문화공간으로, 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주소 벚꽃길 75 문의 051-419-4047
교통 영도대교 - 9번(구해사고 하차)
운영시간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휴관

봉래산 데크로드

날이 맑을 때는 영도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해무가 깔린 날에는 신비로운 동화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기존 산책로에 데크를 설치하여 정상까지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봉래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봉래산 불로초공원, 헬기장, KBS, MBC 송신소를 지나면 나오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면 된다.

동삼동 패총전시관(사적 제266호)

아치섬 입구에 위치하며, 신석기 시대 역사문화 연구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전시관. 빗살무늬 토기 등 10,000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성격과 실체를 알 수 있다.

주소 태종로 729
문의 051-403-1193
교통 영도대교 - 30, 88A, 90, 190, 101번(해양대학교입구 하차)
운영시간 09:00 ~ 18:00, 월요일 휴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해양 박물관이다. 해양과 관련된 문화, 역사, 생물 등을 구경할 수 있으며, 흥미로운 문화행사 체험의 기회도 가지고 있다.

주소 해양로301번길 45 문의 051-309-1900
교통 영도대교 - 186, 66번(국립해양박물관 하차)
부산역 - 66번(국립해양박물관 하차)
101, 88A, 190번(동삼동 국민은행 하차)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토요일 9:00 ~ 19:00(3~4월), 9:00 ~ 21:00(5~8월),
일요일 9:00 ~ 19:00, 월요일 휴관

영도해녀문화전시관

BF

사라져가는 영도 해녀의 문화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전시관이다. 1층에서는 해녀들이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2층은 테마 전시관으로 영도 해녀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다.

주소 영도구 중리남로 2-36(동삼동)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 다음 날 휴관)
※1층 해녀수산물판매장은 연중무휴

태종대(명승 제17호)

태종대는 신라 시대의 태종 무열왕(김춘추)이 전국을 순회하던 도중 이곳의 빼어난 해안 절경에 심취해 활을 쏘며 즐긴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기암절벽 등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다. 다누비열차를 운행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하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동삼동 산 29-1 문의 051-405-2004
교통 영도대교 - 88A, 30, 8, 101번(태종대 하차)
부산역 - 101번(태종대 하차)

흰여울문화마을을 아시나요?

'흰여울'은 봉래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바다에 급이쳐 내릴 때 물거품이 이는 모습이 '흰 눈' 같아서 붙여진 순우리말입니다. 봉래산이 품은 좁은 길 하나를 따라 만들어진 흰여울 마을에서는 광활한 푸른 하늘과 옥빛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각종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피란민의 역사와 아픔을 간직한, 가파른 산비탈의 형형색색 옹기종기 모인 집들. 일 년 내내 가만히 떠있는 마을 앞 바다의 상선들과 모던한 아틀리에와 아기자기한 카페들.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흰여울 문화마을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꼭 체크하세요!

추천 코스

흰여울문화마을은 절영로와 미로 같은 길과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간 흰여울마을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어요.
흰여울길을 중심으로, 2층도 곡각지 아래 골목길 1번을 출발점으로 마을 끝까지 걸으면 2층도 전망대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스A와 B로 나뉩니다.

A 코스 : 흰여울전망대를 통해 절영로를 따라 내려오고,
B 코스 : 이송도전망대에서 피아노계단을 따라 해안 산책로로 내려갑니다.

아는 만큼 더 잘 보여요!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

영화기록관, 전망대 등이 있어서 흰여울문화마을의 역사와 마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아지트 두레박샘터

예전부터 있어왔던 흰여울마을의 우물로 주민들의 식수, 용수로 사용되다가 상수도가 공급되고 지금은 그 모습만 남아있지만 펌프질을 하면 여전히 물이 나온답니다.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하꼬방

하꼬방이란, 상자의 '하꼬'와 '방'의 합성어로 상자같은 조그마한 집들을 일컬어요. 마을에는 집터가 부족했던 피란민들이 상자 쌓기처럼 쌓아 올린 집이 많답니다.

마을의 든든한 기둥 축대

흰여울마을을 받치고 있는 축대들은 원래 집과 텃밭, 돼지 축사 등이 있던 경사진 언덕이었지만, 태풍과 비바람으로 예전 축대가 무너지면서 보강을 통해 현재의 축대의 모습이 됐어요.

모두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 흰여울문화다방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인 "흰여울 복닥복닥 예술공작소"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 체험, 판매하는 "흰여울 오픈마켓"이에요.

배들의 쉼터 묘박지

마을 앞바다에는 일 년 내내 선박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화물선, 원양어선 등이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무르는데 그 풍광이 감성적이고 고즈넉한 느낌이 든답니다.

이국적인 인생샷 흰여울해안터널

절영해안산책로로 이어지는 흰여울 해안터널을 만들었어요. 신비로운 느낌의 터널도 걸어보고 터널 끝 바다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인생샷을 찍어 보아요.

전국 해안길의 원조 절영해안산책로

IMF로 어려웠던 시절, 실업자들의 생계 정책으로 만들어진 절영해안산책로는 전국 해안길의 좋은 본보기가 돼, 지금은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5대 대표 노선으로 선정되어 있답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영도구와 프로젝트팀'여울,이 컨소시엄하여 흰여울문화마을 예술 거리(ART ROAD)를 조성하였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 거리는 35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작품 3점을 건물, 소공원, 교차로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

Blossom

너에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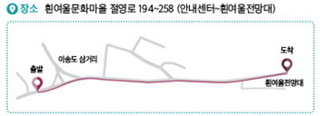
어울바다

휴(休)

선물 1

닭아네

장소 흰여울문화마을 절영로 194-258 (안내센터~흰여울전망대)



흰여울문화마을로 오세요!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버스타고 부산여행

주요기관 연락처

영도구청	051-419-4000	http://www.yeongdo.go.kr
부산시청	051-120	http://www.busan.go.kr
깡깡이 예술마을	051-418-1863	http://kangkangjeep.com
흰여울 문화마을	051-403-1861	http://www.ydculture.com/huinnyeoulculturetown
영도관광안내센터	051-419-4048	blog.naver.com/yeongdowelcome
부산시티투어 점보버스	051-714-3799	http://jumbo.bus.kr
국립해양박물관	051-309-1900	http://www.knmm.or.kr
태종대유원지	051-405-8745-6	http://taejongdae.bisco.or.kr

발행처 : 영도구청 발행일자 : 2021. 9. 기획·디자인 : 효인디앤피 T.051-807-5100

영도구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 운행노선

부산역 출발 ◑ 영도대교 출발 ◑ 남항서로 경유(깡깡이 예술마을, X-sports광장 경유 ◑ 흰여울문화마을 ◑ 하늘전망대 ◑ 75광장 ◑ 태종대 자유중식 ◑ 태종대 유람선 ◑ 국립해양박물관 ◑ 고사대 정문부터 와치로 경유(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경유) ◑ 신기산업 ◑ 삼진어묵 ◑ 봉래시장, 남항시장 도착 ◑ 부산역 도착

요금안내 토·일요일 ※매주 월~금요일 휴무
성인(중학교 이상) : 25,000원(정상가 43,000원)
소인(24개월~초등학생) : 25,000 원(정상가 38,000원)

예약방법

SREP.01 부산여행특급대 홈페이지에서 이용 날짜, 출발인수 및 인원 선택후 결제
SREP.02 예약확정 문자 메시지 도착
SREP.03 예약이 이용 확인 후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 버스 탑승

포함사항

가이드, 전용차량(보험가입), 태종대 유람선 탑승권, 신기산업 커폐 티타임 시 음료 이용권

불포함 안내

점심식사, 기타 개인경비, 국내여행자보험

문의전화 051-469-4113